



사무소의 정식 탐정님께

안녕하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정말 훌륭히 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번의 증거들을 정리하며 탐정님도 느끼셨겠지만, 두 사건은 피해자가 혈연으로 이어져있다는 것과 사망, 신고 시각이 비슷하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력한 용의자들의 진술서는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으니, 저희로선 범인을 찾아내기 힘들어 지겠지요. 하지만 탐정님의 능력이라면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한 증거품들입니다. 이것으로 피해자의 생전 행적을 조금 더 알게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더 사건의 전말에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피해자 이미남의 자택에서 발견된 수상한 USB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긴 그 USB의 겉면에는 시중에 없는 디자인과 글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아마 이것 또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 이번에는 모든 증거들을 둘러보신 후 USB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증거만이 두 사건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은 무슨 의미인가 싶은 증거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있으므로, 헛된 실수로 사건 속에서 헤매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탐정사무소장

추신,

피해자 이미남을 살해한 홍기가 야구 배트라는 소식을 들은 목격자 주하나가, 이미남의 사망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미남의 집에서 그런 물건을 본 적은 없다더군요. 실제로 그 배트에 묻은 지문을 검사한 결과, 그 누구의 지문도 묻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